KiRi 리포트 2017.6.12.
글로벌 이슈

중국 보험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확대

채원영 연구원

요약

2017년 4월 상하이 보험거래소의 주도하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회사 간 신용거래 시범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 상하이 보험거래소의 다음 프로젝트는 신용거래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높은 영업활동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임. 이외에도 2016년 양광보험(陽光保險)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항공사고 보험플랜'을 출시하는 등 중국 보험회사의 블록체인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중국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 활용 범위는 개별 회사의 시스템 효율화 및 상품개발을 넘어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되고 있음

2017년 4월, 상하이 보험거래소(Shanghai Insurance Exchange)[1][2]는 9개 보험회사가 참여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보험회사 간 신용거래 시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음[3]

- 보험회사 간 신용거래는 거래 빈도가 낮은 영업활동(low-frequency business transactions)으로 블록체인의 시스템 성능과 관련 없이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어 시범 프로젝트로 실시됨
- 동 프로젝트는 보험회사 간 신용거래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의 기능(functions), 역량(capabilities), 안전(safety), 운영 및 관리(operations and maintenance)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또한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용거래는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이 높고 거래내용을 조작하기 어려워 거래상대방 위험을 낮출 수 있음
- 이번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한 9개 보험회사는 쿼타이생명보험(國泰人壽),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北大方正人寿), AIA 그룹(友邦 Group), 중국대지손해보험(中国大地财产), Starr 손해보험(史带

1) 보험거래소란 부보리스크를 중개하고 인수하기 위한 중앙거래소를 의미하며, 이곳에서는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거대한 위험을 여러 보험회사가 분할, 인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송윤아(2011. 3. 14), 「뉴욕보험거래소의 재설립 논의와 시사점」, 『KiRi Weekly』

2) 상하이 보험거래소는 2016년 6월 12일, "보험거래소 설립을 통한 상하이의 국제 보험거래 중심지화"라는 설립 목표하에 개설되었음. 개설 당시 등록자본은 22억 3,500만 위안이며 보험회사와 유관기관, 은행, 상하이국제그룹유한공사 등 비금융회사 등 91개 업체가 주주로 참여하였음. 주요 거래 플랫폼은 '3+1' 시스템으로 국제 재보험, 국제선박보험, 벌크화물 등 자산보험 입찰 모집과 특수리스크 분산 플랫폼임

3) Asia Insurance Review(2017. 4. 11), "China: 9 insurers complete blockchain trial"

财产), 태평생명보험유한회사(太平人寿), 태평보험(太平財產保險有限公司), 양광보험(陽光保險), 민생생명보험(民生人保險)임

■ 상하이 보험거래소의 다음 프로젝트는 신용거래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높은 영업활동들(high-frequency business transactions)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임

- 신용거래의 경우 유지증거금 청산이 하루에 한 번 이루어지는 등 그 거래 빈도가 하루에 한 번에서 여러 달에 한 번 일어나는 등 거래 빈도가 낮은 영업활동인 반면, 보험료와 수수료, 보험금의 산정 및 지급 등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거래 빈도가 높은 영업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상하이 보험거래소는 블록체인 도입으로 현재 국제 재보험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는 수동 조정 시스템을 자동 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 이외에도 2016년 양광보험(陽光保險)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항공사고 보험'을 출시하는 등 중국 보험회사의 블록체인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4)]

- 양광보험(陽光保險)은 2016년 3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포인트 적립제도인 '양광패2(陽光貝2)'를 이용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시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2016년 7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고 보험플랜'을 중국 최초로 출시하였는데, 이 보험은 피보험자 및 항공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보험혜택이 가능한 것이 강점임
- 또한 이안보험(易安保險)과 뮌헨재보험은 2016년 7월, 블록체인 실험실을 공동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보험,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 등을 공동 개발할 계획임
- 중국평안(中國平安)보험은 2016년 8월, 블록체인 국제 연합체인 R3EV[5)]에 가입하고 블록체인 기술 응용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해외기관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음
- 중안보험(衆安保險)은 2016년 11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회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목적으로 100% 자회사인 중안커지(衆安科技)를 설립하였음

■ 중국 보험산업의 블록체인 도입은 개별적인 회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 효율화 범위를 넘어 2017년 들어 기업 간 거래로 확대되고 있음 KiRi

4) 뉴스핌(2016. 12. 23), "4차 산업혁명 핵심 중국 블록체인, 전 산업 응용 확산"
5) R3EV 컨소시엄은 2015년 9월 결성된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BOA, 씨티, 골드만삭스 등 50여 개 금융회사와 미국 핀테크 기업 R3가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을 공동개발함. R3EV는 금융거래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불필요한 데이터 공유를 막고 개별 금융회사 간에만 금융거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Corda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1. 24), "'블록체인 협의회 출범 및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운영계획 발표"